익산역 복합개발 '본격화'

익산시, 국내 최고 대기업 3곳과 협약 체결… 역세권 개발 시동

익산시는 국내 최고 민간기업과 KTX익산역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특히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었던 민간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KTX익산역 일대는 교통과 산업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 경제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민선 7기 최대 핵심 공약인 '역세권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익산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전국 어디든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호남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역세권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호남 최대 교통 도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 혁신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먼저, 익산시는 KTX익산역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국내 최고 민간기업과 손을 잡았다.

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시장과 유재구 시의장,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과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이 제안한 개발계획 의견을 기본구상에 반영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역세권 개발에 있어 단연 국내 최고로 꼽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익산역 개발계획 수립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우선 ㈜한화건설은 대한민국 재계 순위 7위 기업인 한화그룹의 대표건설사로서 현재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SRT 동탄역사, 서울역과 청량리 민자역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역세권 복합개발 분야의 국내 최고 건설회사이다.

㈜씨엑스씨는 국내 최초 복층형 오피스텔인 '청원 레이크빌', 국내 최초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쇼핑몰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원마운트 등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 디벨로퍼이다. KTX익산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익산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번 협약을 이끌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립항공박물관, 국회소통관, 창원NC파크 등 다양한 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을 설계한 국내 최고 건축사사무소 중 하나로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용산 민자역사 아이파크 몰, 의정부 민자역사의 건축설계와 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있다.

해당 민간기업들은 국내 각종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익산시는 이번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기점으로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 속도를 낸다.

시는 올해 하반기 민간기업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사전 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이행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숙원사업, 금란도 개발 밑그림을 그린다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군산시는 금란도와 장항항 재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란도는 여의도 면적의 0.7배(202만㎡) 크기로 매년 항로준설이 필요한 군산항 및 장항항의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 조성됐다.

해양수산부는 금란도 투기장과 장항항 어항부두를 연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시, 서천군과 함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본협약 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신규 반영했다.

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2022년 용역 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이번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재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군산항·장항항과 관련한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정책 조언자이자 기획자로서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군산항·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등 관련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금란도 항만재개발 사업은 개발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선 7기에 들어 군산·서천 간에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군산항·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지역상생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며 "금란도 재개발을 위한 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사업은 사업면적 2,022,343㎡, 사업비 4,344억원에 생활체육시설 및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해 대규모 친수공간 및 체험형 관광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패션주얼리·정석케미칼 업무협약

익산시 기업 연구개발 협력 확대,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와 섬유 등에 국한됐던 기술지원을 타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연구센터는 30일 도로용 자재를 생산하는 ㈜정석케미칼과 제품 시험분석 및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충기 센터장,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험분석 지원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시험·분석 인프라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관한 각종 정보공유 및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정석케미칼은 차선도료, 미끄럼방지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도로용 자재 부문에서 국내 선두업체로 꼽힌다. 1990년 설립 이래 제품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왔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0년 노벨사이언스 과학기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케미칼은 친환경 도료 제품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전북도와 익산시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지위를 획득했으며 ▲ X-선 도금두께 측정 ▲ 염수분무 ▲ 납 함유량 ▲ 니켈 용출량 등 4개 분야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중이다.

특히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수수료 50% 할인, 처리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다문화정책 ·가족문화 우수기관 인정

익산시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가족 사랑 실천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세계일보 사장상(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같은 날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주최 '가족사랑실천 우수인증기관'을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다문화정책대상은 다문화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및 비즈&스포츠월드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올해의 가족사랑실천 우수인증기관은 대한민국 가족 지킴이가 주최하고 국민여가운동본부와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각 분야별 실천 공로자들을 발굴 시상해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바른 인성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분야별 시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친환경 소비 제로 웨이스트 이벤트 실시

군산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시민들의 제로 웨이스트 참여 독려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로 웨이스트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재활용해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친환경 운동이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SNS이벤트를 마련했다.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이벤트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 중 30명을 무작위 추첨해 친환경 생필품으로 구성된 제로 웨이스트 선물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음식이나 음료 구매 시,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이 아닌 직접 가져간 다회용 용기, 텀블러, 천주머니 등에 내용물을 포장한 사진을 찍은 후, 시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용기내 군산 태그와 함께 댓글을 남기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승화원 4월에도 풀가동

군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중인 화장시설 정책을 4월에도 이어간다.

시 승화원(화장장)은 지난 17일부터 하루 화장 건수를 화장로 4기, 3회(12건) 운영하던 것을 비상시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해 4회(20건)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전면 금지하고 일반시신 위주로 전환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관내 화장시설보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유족들은 원정 화장까지 마다하지 않지만, 지방 화장시설들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